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 이야기

# 장학월보

Vol 274 2015 / 12



# 쉘, 그 반을 넘기며

글 사천중학교 교장 시경숙

이즈음 생긴듯한 숨어있는 흰 머리  
눈 내린 깊은 밤 울리는 소리마냥  
짓찍고 나른한 쓸쓸함 하냥 묻어난다.

한밤중 옷자란 손발톱 깎으면서  
게으름에 퇴적된 무심함을 잘라낸다.  
이제 막 새순으로 돋는 허물을 도려친다.

어설픈 연연에서 벗어나야 곧추서고  
여년묵은 고집에서 헤어ना야 환해짐을  
돋보기 그 속에서 뵈는 바늘귀가 들려준다.



Contents



04 권두언

아쇼카의 가로수 길 / 교육감

06 생생현장

08 장학칼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 / 최 훈

09 특별기획 /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시행 이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 / 문승태  
경남 진로교육은 지금 / 김정규  
같이 놓고,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 정명기

20 교육정보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초청·활용 사업  
최근 개발된 초등 장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추첨배정 방법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기관)별 12월 주요 행사 안내

28 배움중심수업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이란? / 이승주

30 배움이 즐거운 경남교육 / 이달의 교육기관

알찬 연수·행복 교육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경상남도교육연수원 / 구자익

32 동아리 탐방

「초등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좋은 수업 연구」 경남초등수업연구회 / 박영식

34 이달의 교사

그림을 그리는 수학 선생님 / 신숙자

36 책 읽는 교사의 서재

교사 전수정의 서재는 "힐링"이다. / 전수정

38 삶의 향기

가사문학 누정길에서 길을 묻는다 / 황정혜

39 지상갤러리

매, 난, 죽 / 안옥란



표지사진 "꿈을 향한 임찬 도전"  
정호찬(김해 삼방초등학교 교사)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월호 모집 기간 : 2015년 12월 19일까지
- 모집내용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배움 중심 수업, 삶의 향기(시, 수필, 독후감 등), 등 분량 : A4 1~2매 내외
- 원고보내는 곳 :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 ※ 내려받기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초등교육과 ▶ 부서사업 ▶ 보고서 / 간행물

2015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총괄 | 초등교육과 과장 최훈 기획 |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오영선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대현

편집위원 | 박영선, 박선정, 배인숙, 김요섭, 정호찬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 아쇼카의 가로수 길

흙먼지 날리는 길을 행인들이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황야의 지평선 끝까지 아스라이 이어진 길입니다. 마을과 마을은 아득히 멀고, 긴 행로만큼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길의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노랗고 붉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단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을 걷다 보면 차라리 콧노래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이천삼백 년 전 인도 대륙의 길이 그랬습니다. 먼 길을 가다보면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만이 아니라 약초도 심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군데군데 우물도 팠습니다. 반얀나무처럼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들도 많았지만, 망고나무, 무화과나무, 이름도 낯선 장미사과나무와 같은 갖가지 과일 나무들이 우거져 손만 뻗으면 맛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로수 길이 기원 230여 년 전에 그 큰 나라 온 누리에 나 있었습니다.

종로 거리에 사과나무를 심어 보자던 가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심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로수에 맞지 않는 수종이어서 심지 않을 수도 있고, 열린 열매를 나누어 먹기 어려워 꺼릴 수도 있지만,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탄 데 있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쇼카 왕이 가로수를 심은 까닭은 피약별을 가려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달래 주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국장(國章)인 네 사자 머리 문양은 아쇼카 돌기둥의 상부를 그대로 본뜬 것인데 돌기둥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의 바위 벼랑에도 각문(刻文)이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은 것에서, 약초밭을 일구게 한 것, 그리고 여기저기에 치료소나 영양소를 세우게 한 뜻이 두 천년이 넘는 지금의 인도, 그 때의 가로수는 온데간데없는 그 어지러운 나라에 아직도 선연히 남아 있습니다.

자비의 ‘자(慈, maitrī)’는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이요, ‘비(悲 karunā)’는 고통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랑과 연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비’에서 비롯하여 ‘자’로 향하는 것이 자비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손길이 제 자식을 넘지 못할 수도 있고, 못사람에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에도 단계가 있고 가장 수승한 것을 무연(無緣) 자비라 일컫습니다. 아무런 차별상 없이 베푸는 자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정, 무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쇼카 대왕을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일컫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로수 길을 만들고, 치료소와 요양소를 세운 것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보호소와 치료소까지 함께 지었습니다. 자비는 무릇 만물이 눈에 밟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였던 간디는, 암소를 숭상한다 하면서 실지로는 한 방울의 젖을 더 짜내기 위해 날카로운 칼과 송곳으로 소의 몸을 찌르는 잔혹함을 이제는 그치자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물의 아픔도 제 아픔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사랑이 매한가지임을 압니다. 야쇼카 대왕이 가로수를 심은 뜻과 동물 치료소를 세운 뜻은 이렇듯 근원이 하나입니다.

노란 망고들이 탐스럽게 열리던 가로수를 잘라내 버리듯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앗아가는 일이 일어난 지 한 해를 넘겼습니다. 밥값을 보텔 만큼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노리는 바는 다른 데 있었겠지만 들고 나온 것은 돈이었고, 그것은 먹혀들 만한 빌미였습니다. 허투루 돈을 쓴다는 혐의만 씌우면 누구나 의심을 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안은 슬그머니 정의의 문제로 옮겨 가고, 급식의 의미에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밥 먹일 돈만 눈에 보이고 밥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수를 심을 돈에 눈이 머무르면 그 넓고 메마른 땅에 줄지어 설 가로수는 정작 보이지 않았을 테고, 나무가 심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쇼카 대왕에게 자비의 마음이 우리나라지 않았다면 더위를 먹은 낙타며 무소가 쉬어 갈 요양소도, 잠시나마 지친 삶을 달랠 가로수 그늘도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지고 있는 가로수 길을 달리며 이천삼백 년 전 인도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야쇼카를 떠올리며 지도자의 안목을 생각했습니다. 깊고 그윽한 자비의 눈길을 생각했습니다. 아집은 지혜를 가두는 감옥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에 열매가 반짝이는 가로수가 보이고, 더운 김이 피어나는 밥상이 아른거린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어찌 밥만이고 사람만이겠습니까? 굶는 사람, 배고픈 동물, 사랑에 주린 아이, 사랑을 기다리는 동물, 모두에게 자비의 손길이 닿는다면, 우리는 발갛게 익어가는 장미사과의 향기를 맡으며 함께 먼 길을 갈 수가 있겠지요.

찬바람 스치는 한 해의 끝자락, 따뜻함을 생각하며  
교육감 박 중 훈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 생생현장



- ① 공공도서관 현안토론회 개최
- ②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 실시
- ③ 경남 초·중 체육대회 격려
- ④ 도내 17개 지역별 학교 방문

- 5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함양교육지원청)
- 6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거창교육지원청)
- 7 찾아가는 체험활동(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8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줄넘기 대회(통영교육지원청)
- 9 지역 내의 대학도서관과 업무협약체결(밀양도서관)
- 10 학교 급식 관계자 식생활 체험 연수(고성교육지원청)
- 11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창원교육지원청)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



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최 훈

산업 혁명 이후 사회는 점점 더 분화되어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고 회사나 공장 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많은 역할이 생겨났으며 분화되었다. 아담스미스는 분업으로 인한 놀라운 생산성의 증대를 당대의 유럽 여행을 하면서 목격하였고 이를 통해 국부론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근대 이후 수많은 직업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개수는 1만 2천여 개에 이른다.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사라지는 직업과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다. 또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생들 중 그 꿈이 소위 부모가 원하는 안정적인 직업에 국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장래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직업군 중 학생들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직업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하시킬 것이고 성장 잠재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하자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적극적인 '진로교육'이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와 환경 속에서 그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직업 선택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진로교육의 정의에서 본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그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고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 정부기관, 기업은 그들 사이의 간극을 좁혀 서로 소통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시대가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다. 어제 나온 최신 핸드폰이 구형이 되어버리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리지도 않는다. 사양 산업도 많고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도 많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해 1만 2천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국가와 교육기관, 가정이 함께 고민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특별기획

## 진로교육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활동의 한 방향으로서 사회적 자기실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는 진로교육의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진로교육법 시행 이후의 진로교육 정책 방향

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문승태

## 1. 서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여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진로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진로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진로교육에 관한 진로교육법을 명시적이고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인 덴마크나 핀란드 등 몇 개 나라에 불과한 만큼, 진로교육법 체계를 마련한 우리나라는 앞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로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학부모·교사·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의 진로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 진로교육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행복교육’, ‘창의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교사, 전문가 등 여러 관계집단들의 논의의 결과로 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학생들의 진로개척 문제가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보다 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진로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진로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말한다. 사실 진로교육의 부재로 인한 청년 실업은 사회 전체의 성장가능성을 급격하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sup>1)</sup> 특히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유소년 인구비율의 급감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인구·사회구조의 급변<sup>2)</sup>에 따른 미래유망직종(실버 및 의료 사업)과 스마트혁명 도래(융·복합, ICT 기술사업) 및 기업의 채용환경변화<sup>3)</sup>를 감안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의 제정과 정책 시행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소질과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진취적인 진로개척 능력 및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은 급속한 경제적 환경 및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행복한 삶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로교육 정책 시행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제공할 것임엔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대규모 공채를 통해 직무와 무관한 일반인재를 뽑는 방식에서 2015년부터는 직종별로 전문인재를 채용하는 수시 채용방식의 인원이 2015년에 15,000명에서 2017년 7만 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정부보고서, 2014).  
 2) 유소년(0~12세) 인구 비율 : ('10) 16.1% → ('15) 13.9% (93만 명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10) 11% → ('14) 12.7% → ('20) 15.7%  
 3) 청년실업자(25~29세)의 10% 정도가 1년 동안 실업할 경우 장기적으로 5.6조의 소득손실과 4천억 세수감소 발생

## 2. 진로교육의 성과 및 한계

사실 지금까지 진로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진로교육의 성과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의 촉발로 스스로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sup>4)</sup>

둘째, 진로체험의 양적 확대로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체험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사회 협력 관계의 발전으로 인해 직업체험, 진로캠프, 화상 멘토링 등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sup>5)</sup> 특히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력, 모든 교육지원청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운영, 실무센터인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등이 확대되었다.<sup>6)</sup>

셋째, 진로교육의 성공적 진입으로 자유학기제 중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진로와 직업」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의 개발 및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활동의 채택 등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7)</sup>

넷째, 정보망 등 기반 구축으로 꿈길 및 커리어넷 등 정보망이 구축되고 체험처와 진로진학정보 등 관련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 전국 진로교육협의회와 진로교육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진로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의 결과가 진로선택 및 진로계획 수립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진로교육의 현장성과 적실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현장직업체험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셋째, 교육에서의 경쟁력 있는 진로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원의 질적 제고 등 학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진로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역량과 교육지원청의 집행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진로정보 등의 유통경로를 확장하여 교육현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정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4) 커리어넷 사이버상담 :30,129건('13년)→ 31,296건('14년)

5) 연간 직업체험 학생 수 : 67만 명('11년)→146만 명('12년)→165만명('13년)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화상 진로 멘토링 확대 : 멘토 : '14년 141명→'15년 250명

학교 : '14년 408개교→'15년 1,000개교

6) ('14년) 50개→('15년) 100개(6월), 150개(12월) 설치(예정)

7)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5,130명, 92.9%)

진로계획 수립 학교 : 초등학교 80.0%('07년)→95.8%('13년), 중학교 88.7%('07년)→98.1%('13년), 고등학교

88.3%('07년)→ 97.3%('13년)→98.6%('14년)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개발('12년)하고 시범학교('13년, 중학교 17

개교) 및 연구학교('14년, 중·고등학교 34개교) 지정 및 보급 확대

8) 커리어넷 누적 회원 수 206만 명('14년)

### 3. 정책 추진 방향

#### 1) 기본방향

진로탐색과정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활동 보장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진로캠프, 진로동아리활동, 진로직업체험 등의 활동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조 체제 아래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에 제약받지 않고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진로교육과정의 진로탐색기회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시작점임을 널리 홍보하고,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기업체)의 적극적인 진로직업체험 일터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 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 폰 등을 활용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과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진로교육에 필요한 교사 및 행정 지원 등의 물적·인적지원 양성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 2)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첫째, 학생들의 진로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 진로교육 및 체험 관련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진로현황 및 평가 등 진로관련 통계와 빅 데이터를 구축·공유하며,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협력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과정의 개선으로 기존 학교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초·중·고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성취기준을 개정하고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진로전담교사를 확대배치하거나 진로전문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자유학기제 경험을 바탕으로 Post-자유학기제 단계학년의 진로 진학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진로정보 및 진로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지원하고 나아가 SCEP의 위상 정립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진로검사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진로취약계층인 학부모·성인을 위해 진로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진로교육지도를 제작하여 현장교사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직업과 관련된 진로교육용 직업정보·진학정보의 콘텐츠 및 동영상 개발·보급하며 진로정보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진로교육 대상층의 확대를 초·중·고·대 학교 급별 체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Pre-자유학기제 단계의 진로개발 기초함양을 위하여 관심과 흥미 분야 찾기 체험 실시 및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미니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졸업 후 선 취업 경력경로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 진학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학교 급별에 따라서 진학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및 일반 성인의 진로인식 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로 결정기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진로이해를 강화하고, 나아가 학부모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

해를 폭넓게 하여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진로취약계층을 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부적응·위기학생, 중도탈락 학생 등을 위한 진로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안학교 학생들과 다문화·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진로교육 지원인력양성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생애주기별 진로 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부모의 진로코치를 함양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는 진로 결정기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담임교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체계적인 진로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생의 진로체험 및 활동에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진로재능기부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을 ‘교육기부’로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전문직업인이나 지역인사의 멘토 풀을 구성하고 멘토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기부 프로그램이나 인력에 대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기부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진로종합상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인적자원, 진로플래너 간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도모하여 진로·담임교사가 진로선택기 학생의 진로선택을 합리적·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함양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4. 결론

진로교육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교육 정책의 시행을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사회, 국가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 개인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진로교육 및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개척함과 더불어 자신에게 합당한 지속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 측면에서 자녀의 진로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학부모는 미래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및 자녀 진로교육 전략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진로교육 설명회 및 연수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부모 진로코치, 모니터단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측면에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진학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학교 관리자·일반교사·예비교원 등의 지원인력을 통한 학교진로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 대학, 사회직능단체,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모델의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인데, 이는 직업체험기관을 인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체험의 양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 진로교육의 질 관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진로교육센터 건립 및 지역체험기관 인증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의 취약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수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경남 진로교육은 지금

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김정규



## 1.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 진로진학 사이버 상담 지원

- 학생의 흥미·적성, 생활환경 등 제반 사항 파악을 통한 학생 개인 맞춤형진로 지도를 통한 자기주도 진로설계 능력 배양
- 진로진학상담원 운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 다양한 진로·진학관련 자료 제공으로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지원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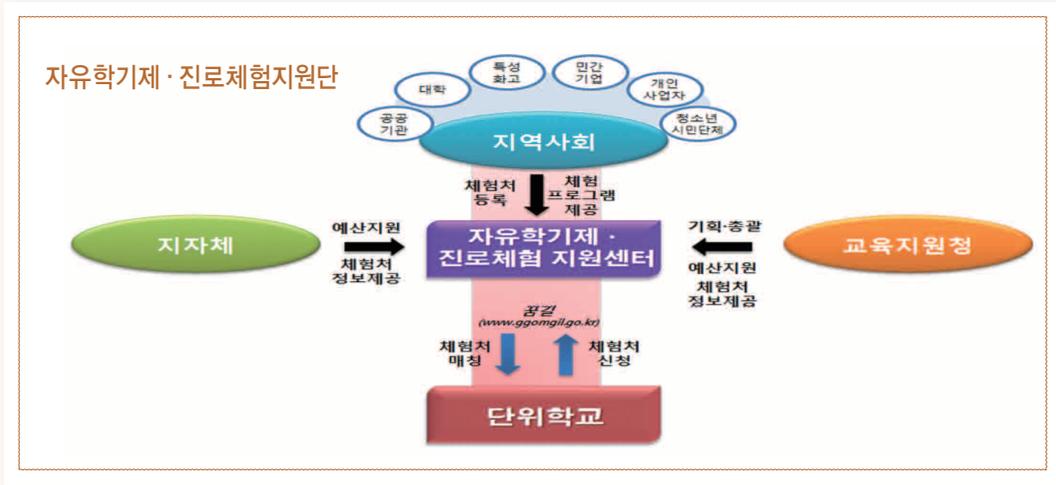
### ◆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선택 방법 제공
- 단위학교가 희망하는 시기·내용으로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 지원(중 64개교, 고 20개교)
- 농산어촌학교, 도서벽지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진로진학 정보 제공
- 교육수요자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교사들의 진로진학 마인드 제고

## 2. 진로교육 활동 및 진로체험 지원

### ◆ 진로체험활동 지원

-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 분야별 특색 있고 내실있는 진로체험을 통하여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함양 및 진로 개발·설계 역량 향상
-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생생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고 미래 진로 선택을 돕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직업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 확대
- 대상 : 전 중·고 학생
- 방법: 현장직업체험, 현장견학형, 직업실무형, 학과체험형, 진로캠프형 운영
- 진로체험활동비 지원: 중학교 271교, 고등학교 189교
-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운영 : 진로체험지원단 18개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단 281명, 체험처 1,796개 발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진로체험처 관리, 진로체험 매칭시스템 구축>

◆ 초·중·고 학생 진로 체험동아리 운영

- 진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활성화
- 소규모 그룹의 진로체험 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 제고
- 초·중·고등학교 진로체험 동아리 공모, 1·2학기 중 진로체험 동아리 운영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

◆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 현장 직업체험의 기회가 한정적인 소외지역을 위한 농산어촌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확대 운영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진로 개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 탐색 기회 마련 및 직업인과의 직접 질의·응답으로 양질의 직업 정보 습득
- 대상 : 농산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방법 : 월 3회 멘토 1명과 5개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원격 화상 진행(다자간 만남)  
※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2개교 운영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연구학교 운영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보급하여 교실 내 교과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 인식 및 탐색 활동 지원 및 학생의 창의적인 진로개발 역량과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

- ※ 강의와 토론, 연극, 모의창업(앙터프레너십), 광고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 2015. SCEP 연구학교 운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운영

### 3. 진로교육 연수 운영

#### ◆ 진로가치명료화 직무 연수, 다중지능 역량강화 직무연수, 진로역량 강화 원격 연수

- 집단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진로 결정 지원
- 집단상담 지도자 과정 실습 연수 운영으로 진로가치명료화 지도 능력 향상
- 다중지능별 상담 실무 과정 및 다중지능별 지능 계발 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사 진로지도 능력 향상
- 학생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
- 연수 대상 : 초·중등 교원, 진로진학상담교사
- 연수 운영 : 7월, 8월, 11월

#### ◆ 대학교수와 함께하는 100개 학과 직무연수

-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진학 상담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학문 탐색을 통한 진로상담 결정력 향상 및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진로역량 강화
- 학과연구 후 자체 학과카드 제작을 통한 진로 수업의 질제고
- 대상 : 진로진학상담교사 80명 내외
- 운영 기간 : 2015. 10. 30 ~ 2015. 12. 5.

####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원격연수

- 자녀의 진로 인식 개선 및 진로교육 지원으로 진로교육 참여 확대
- 진로·진학 지도의 학부모 전문 인력풀 양성
-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맞춤형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
- 운영 결과 : 초·중·고 학부모 진로코치 2,693명 양성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합니다.



##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글 마산 구암고등학교 교장 정명기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잘 자고, 잘 놀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웃고 성장하면서 꿈을 키워 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행복한 진로교육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의 터전이라는 생각에서 본교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였다.

첫 번째, 학년 연계 진로수업이다. 학기 초 16명의 교사가 진로수업을 지원하였으며 학년 별 진로 연계성에 따른 수업 활동표에 따라 특색있는 진로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진로위인전 「WHO?」를 학급별로 돌려 읽도록 하고 모둠 토의를 진행하였다. 인문 고전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만화를 돌려 읽기도 하고, 진로 관련 잡지 슬로리딩 활동도 전개하였다. 창의 퍼즐 활동과 함께 공부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모듬 다트와 모듬팽이, 모듬 탁구도 진행하였다. 교사들 각자의 역량에 맞는 활동의 전개로 본교의 진로수업은 자율학습에서 벗어나 즐거운 체험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적 배움’을 지원하는 진로활동의 전개이다. 학생은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학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타인의 강제에 의한 학습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장 유의미함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배움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였는데 ‘이미지 공부일기’와 ‘아침형 인간 프로젝트’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코칭 캠프’가 그것이다. ‘이미지 공부일기’의 강점은 교사들의 정성어린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일기는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300명 정도의 학생이 작성하였으며 학기를 나누어 석 달간씩 진행되었다. ‘아침형 인간 50일 프로젝트’는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아침 프로그램으로 1학기 때는 3학년 학생들이 도전하였고, 2학기에는 1, 2학년이 하브루타 공부법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열기와 만족도가 상당하였다.

세 번째,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활동이다. 내 꿈을 이루는 꿈 끼 주간운영, 교과 탐구 프로젝트, 진로독서 발표대회, 미래 꿈 아바타경진대회, 3.3.3자아선언문 작성, 강점 발견 50프로젝트, 이상한 꿈의 매트리스, 내 인생에 용기를 주는 켈리그래피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활동들의 공통적인 것은 RVD꿈의 영역에 접근하는 진로활동이었다는 점이다. 3차원의 현실영역에서 4차원의 꿈의 영역으로 학생들을 접근시킴으로써 자신의 꿈을

형상화하고 구체화시켜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 ‘모듬학습 한국사 경진대회’는 본교 진로교육의 방향인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함께 성장하자’의 취지에 맞게 3주간 한국사를 함께 공부하고 팀을 이루어 문제를 풀었던 뜻 깊은 경진대회였다.



내 인생에 용기를 주는 캘리그래피



미래꿈 아바타 경진대회



모듬학습 한국사 경진대회

네 번째,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대입지원 활동이다. 자기소개서 모듬 멘토수업, 대학도서관 탐방을 통한 RVD활동, 40명의 대학교수와 함께한 학과 10문 10답, 찾아오는 대학입시 멘토링 활동이 그것이다. 그 중 가장 멋진 활동은 학과 10문 10답이었는데 40명의 대학교수를 본교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학과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6개 대학 도서관을 직접 찾아서 RVD 탐방을 한 것은 독특한 체험이었다. 해당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는 경험은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다섯 번째, 학부모 참여 진로교육이다. 자녀교육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님에게 올바른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본교의 진로교육의 목표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찾는 ‘덕승재 행복교실’을 운영하였고, 향후 학부모 진로진학 3기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같이 놀고, 공부하며 함께 성장하게 해주는 본교의 다섯 빛깔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리라 생각된다.



대학도서관 RVD탐방



40명의 교수와 함께한 학과 10문10답



덕승재 행복교실



# 경남교육! 이것이 궁금합니다.

-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초청·활용 사업
- ▶ 최근 개발된 초등 장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201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추첨배정 방법
- ▶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 ▶ 부서(기관)별 12월 주요 행사 안내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초청·활용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과 별도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사업이 있는데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 **추진 배경** : 세계화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중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원어민 교사 활용을 통한 중국어 교육 강화

▶ **추진 현황**

학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초청인원	9명	13명	13명	13명	13명(예정)

▶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모집·선발**

- 자격 :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외국어로서 중국어교사자격증서(중국 국가한판 발급)를 소지한 자
- 신분, 지위 및 체류자격
  - 신분, 지위 :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신분으로,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되는 피고용자의 지위
  - 체류 자격 : 법무부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체류자격 중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E2 비자 소지)로 교육부의 초청에 의해 초·중등학교에서 근무
  - 최종 초청자를 대상으로 한·중 양국에서 사전연수 실시  
[한국어 및 문화 관련 사전연수(중국, 1월)/한국 생활·문화·교육제도 및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사전연수(한국, 2월)]

▶ **배치·활용**

- 초·중·고등학교 정규수업에서 보조교사로, 방과후학교에서 교사/보조교사로 활용
- CPIK교사 및 CPIK 협력교사 대상 심화연수, 학교장/협력교사 등 학교관계자 대상 연수 및 임기 만료 귀국 CPIK교사 대상 환송연수 등 지원

[담당자 연락처 : 268-1512]

## 최근 개발된 초등 장학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인 초등 장학 자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초등교육과에서 개발하여 보급하였거나 보급 예정인 장학 자료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배움중심수업 확산, 과정중심 수시평가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평가문항 제작 역량강화 연수자료(11월 보급)

- 내용 : 평가문항 제작을 위한 이론적 배경 및 실제
- 활용 : 평가문항 제작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자료로 활용
- 배부 : 전 초등학교 1부씩 배부

### 2.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코칭자료(11월 보급)

- 내용 : 자기주도학습 알아보기, 목표관리, 시간관리, 학습관리 등으로 구성
- 활용 : 2015학년도말 학사운영 효율화 제고 차원에서(꿈꾸주관행사시 활용), 창의적체험활동, 아침활동, 방과후활동 시간에 활용
- 배부 : 희망 초등학교(75개 학교)

### 3. 2016.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12월 보급 예정)

- 내용 :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교실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이해
- 활용 :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장학자료로 활용
- 배부 : 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1권, 교육지원청, 관련 직속기관에 배부

### 4. 2016.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자료(12월 보급 예정)

- 내용 :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도움자료
- 활용 : 실제 사례 중심의 특색 있는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도움자료로 활용
- 배부 : 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1권, 교육지원청, 관련 직속기관에 배부

### 5. 배움중심수업 도움자료(12월 보급 예정)

- 내용 : 배움중심수업의 이해, 배움중심수업의 전략, 배움중심수업의 실제
- 활용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적용 및 연수자료로 활용
- 배부 : 전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관련 직속기관에 1부씩 배부

### 6. 2015.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우수사례집(12월 보급 예정)

- 내용 : 2015.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참가 교사들의 배움중심수업 실천 사례
- 활용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자료, 연수 자료로 활용
- 배부 : 전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관련 직속기관에 1부씩 배부

### 7. 어린이 놀이문화 지도자료(12월 보급 예정)

- 내용 : 교실놀이, 바깥놀이, 전통놀이, 생태놀이 100가지를 선정하여 놀이 방법을 안내
- 활용 :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놀이문화 지도를 통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 영위
- 배부 : 전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관련 직속기관에 1부씩 배부

[ 담당자 연락처 : 268-1114 ]

## 201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추첨배정 방법

2016학년도 고입전형과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추첨배정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세요.

### 1. 2016학년부터는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16학년도 고입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선발고사에 대한 중학생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하여 선발고사를 폐지하였습니다.

### 2.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은 교과성적(성적이 존재하는 학기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80%와 비교과 20%로 반영됩니다.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과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기는 제외함.

### 3.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추첨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고(자공고) 평준화지역은 1학군(구창원), 2학군(구마산), 3학군(진주), 4학군(김해)으로 구분됩니다.

201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신입생은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남·여별 전형성적에 따라 석차백분율을 구한 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원서 제출시 복수지원한 지망학교 순위에 따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합니다.

추첨배정 방법 변경은 학군내 선호-비선호 학교 구분 등으로 인해 평준화지역의 전반적인 교육력이 약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책무성을 갖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경남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 : 268-1183 ]

##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육·사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교육비리 및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을 통한 불법·비위행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호에서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1. 중등 수행평가 업무 처리 소홀

「2014학년도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p15,16)」및「○○고등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제2조(기본방침), 제12조(수행평가)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획일적인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점수화가 가능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팀별 평가의 경우는 획일적인 점수부여를 지양하고 구성원 활동에 따른 차등평가를 하여야 하며, 수행평가 결과물 자료보관 기간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교사 ○○○은 2014년 11월에 2014학년도 2학년 2학기 ○○ 수행평가를 채점하면서, 수행평가 척도표에 실험 결과의 과정을 채점 기록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2학년 151명 중 6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만점을 부여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떨어뜨렸으며, 교사 ○○○, ○○○ 및 ○○○은 수행평가 결과물 자료보관 기간을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기간제 임용 잘못

경상남도교육청의「201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14.2.13.)」에는 1)방학 중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 경우는 ①담임교사, ②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자로서 한 학기(6개월)이상 임용되는 경우로 되어 있고, 2)한 학기(6개월)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 임용을 할 수 없으나, 한 학기(6개월)미만 근무자라도 전국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지도, 교기지도, 합창, 합주 등 특정분야 지도, 방학 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장 ○○○ 및 교감 ○○○는 2014학년도에 ○학년 ○반 담임교사 ○○○이 2014. 4. 28.부터 7. 23.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기간제교사 ○○○을 채용하여 ○학년 ○반 담임교사로 임용하였고, 교사 ○○○이 다시 여름방학기간인 2014. 7. 24. ~ 8. 25.까지 병가를 신청하자, 여름방학 중 행사인 영어캠프, ○○캠프(기초학습 부진아), 스포츠클럽 하계훈련, 대학생 멘토링 업무 수행 및 담임교사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을 다시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14.7.24.~8.25.(여름방학), 33일, ○-○반담임]로 재임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교사 ○○○에게 ○○캠프 강사로 1일, 기타업무로 4일 등 총 5일만 근무(근무상황부 기준) 하게 함으로써 방학 중 불필요한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3.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신청 소홀

경상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 지침」 제2조 (집행지침) 가항(관리감독 세부 기준) 제3절 (설계검토 및 승인)에 따르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전 관할청의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일위대가, 원가계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반직6급 ○○○은 2014년도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공사”[계약금액: 30,105,650원, 계약일: 2014. ○. ○, 계약상대자 : (주)○○대표 ○○○]를 경상남도○○교육지원청의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사실이 있고, 교장 ○○○, 행정실장 ○○○은 시설공사 업무 담당자가 위와 같이 설계도서 및 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4.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잘못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본방침」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70,000원,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이 지급불가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학사 ○○○, ○○○, ○○○ 및 특수교사 ○○○은 2013. 4. 18. 개최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40,000원을 ○○○ 등 2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등 2013, 2014년도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총 10건, 1,860,000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담당자 연락처 : 268-1077 ]

## 부서(기관)별 12월 주요 행사 안내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기관)명	연락처
1	12.1.(화) 12.3.(목)	2016. 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교육과정편성운영 도움 자료 활용연수	진주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담당 교사, 전문직	700명	2016. 초등학교 학교(학급)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위한 지침, 도움자료 활용에 관한 연수	초등교육과	268-1113
2	12.1.(화) 10:00~16:00	행복리더십 관리자 연수	대강당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00명	정책변화에 따른 유치원 운영방향 강의 등	경남유아교육원	237-8085
3	12.2.(수)	2015. 다문화·탈북이해교육 관리자 연수	창신대학교	도내 전 유(단설),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99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관의 확립과 통일대비 우리의 자세</li> <li>다문화교육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li> <li>다문화·탈북사회에 대한 관리자의 대처능력 및 지도역량 함양</li> </ul>	학교혁신과	268-1516
4	12.2.(수)~12.4.(금) 12.9.(수)~12.11.(금)	초·중등스피치 리더십직무연수	창원대학교	초·중등 교장 및 전문직	8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의 품격을 높이는 스피치</li> <li>공감·소통 스피치</li> <li>스토리텔링 스피치</li> <li>리더의 파워 스피치</li> </ul>	경남교육연수원	279-9041
5	12.4.(금) ~12.5.(토)	초등장학 성과공유 워크숍	창녕 부곡 로얄호텔	초등장학 유공 교원 및 전문직	160명	2015.초등장학 성과 공유 및 개선안 도출	초등교육과	278-1115
6	12.4.(금) ~12.5.(토)	2015. 탈북학생 지도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창녕 부곡 로얄호텔	초·중·고 탈북학생 지도교원	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북학생 멘토링 지도의 실제</li> <li>북한 이탈주민의 이해</li> <li>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정책 소개</li> <li>탈북학생의 특성, 지도방법 이해 및 지도역량 강화</li> </ul>	학교혁신과	268-1516
7	12.5.(토) ~12.20.(일)	경남독서한마당 우수 작품 전시	창원도서관 별관 갤러리창	경남도민	100명	경남독서한마당 우수 작품 전시(119편) - 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독서만화, 독서신문 (월요일휴관)	창원도서관	278-2832
8	12.7.(월)~12.9.(수) 12.9.(수)~12.11.(금)	초·중등명상을 통한행복리더십 직무연수	아침편지 문화재단 연수원	초·중등교장 및 전문직	22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나무, 자연, 정리, 소리, 웃음, 걷기명상</li> <li>힐링허그 사감 포용</li> <li>고도원 리더십 특강</li> </ul>	경남교육연수원	279-9011
9	12.8.(화)~ 12.9.(수)	2016년 겨울방학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김해도서관	6-7세 유아 및 초등학생	300명	2016년 겨울방학특별강좌 '생각이 크는 독서와 글쓰기' 등 12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김해도서관	320-5563
10	12.9.(수) 14:00~19:00	특성화고 교감 및 고3부장 연수	성산아트홀 소극장 아트부페아트홀	특성화고등학교 교감 및 3학년 부장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소개(NCS, 도제학교 등)</li> <li>취업선도학교 우수 사례 발표(공업, 농업, 상업, 가사 계열)</li> <li>현장실습 파견 및 취업증빙자료 학교별 탑재 방법</li> <li>미취업자 취업 및 취업유지 방안</li> <li>취업을 제고를 위한 교감 및 3학년 부장의 역할</li> </ul>	과학직업과	268-1223
11	12.10.(목) 13:00	경남교육설명회	창원컨벤션센터	전 학교장	1,000명	경남교육 2016. 설명회	정책기획관	278-1734

순	일시(시기)	행사명	장소	대상	참가인원	주요내용	주관부서 (기관)명	연락처
12	12.10.(목)~ 12.13.(일)	제11회 경남교육 박람회	창원세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 도민	십만명	경남교육정책관 및 특별관, 주제관 등 교육정보 제공과 입시설명회, 진로특강, 어린이 요리왕 선발대회 등 부대행사 개최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269-0712
13	12.10.(목) ~12.13.(일)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교육 청과의 학생 미술 작품 교류전	창원컨벤션센터	초·중·고, 일반인	100명	•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청 초·중학생 미술작품 전시	학교혁신과	268-1513
14	12.12.(토) 14:30~17:00	인문학특강	마산도서관 시청각실	고등학생 이상	80명	영문학자 (박상진) 박사의 '단테문학의 독창성: 프란체스카와 오디세우스를 중심으로'에 관한 특강	마산도서관	240-4550
15	12.14.(월)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 합동보고회	경남교육 연구정보원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및 선도교원	170명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 우수사례 보고	과학직업과	268-1212
16	12.15.(화)~ 12.18.(금)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4교 2학년	6,041명	• 인터넷-컴퓨터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평가 내용 : 의사소통 영역(국어, 영어), 수리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직무적응 등 5개영역	과학직업과	268-1223
17	12.16.(수) 14:30~17:00	2015. 수업연구 회(동아리) 발표회	경남교육연구원	초·중등 교원	250명	• 2015. 수업연구회 및 동아리 성과 공유 및 사례 발표 • 수업연구회(동아리) 운영 발전 방향 협의	초등교육과	268-1114
18	12.17.(목)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30개 고교 담당교사 및 공공도서관 직원	300명	• 비경쟁 독서토론 • 행복한 책읽기작가(이금이) 초청 이야기 나누기 • 독서문화진흥사업(인문책쓰기 동아리, 교과연 계수업) 보고회	과학직업과	268-1231
19	12.17.(목)	2015. 금연페스티벌	마산MBC홀	창원관내중,고 등학생 및 흡연 예방담당교사	1,200명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 실적 전시 및 금연 사례 보고	체육인성과	268-1413
20	12.19.(토) 14:00~16:00	개성 특특! 나만의 2016 달력 만들기	창원도서관 별관 회의실	초등	1차-25명 2차-25명	달력 DIY세트를 활용하여 하나밖에 없는 개성 만점 나만의 2016 달력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 • 신청 : 12. 12.(토)~12. 15(화) 어린이자료실 방문 및 전화	창원도서관	278-2883
21	12.22.(화)	2015. 경남교육 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 발표회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4층 종합강의실	10개현장연구회 회원 및 참관 희망자	150명	10개 교육정책현장연구회 및 책임연구원의 교육 정책연구결과 보고서 발표(총 12편)	경남교육연구 정보원	269-0742
22	12.26.(토) 10:00	토요가족체험운영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경상남도내만 3~5세유아및 학부모	300명	• 바람공체험, 물체험, 동화방, 아트룸, 건축블록체 험 등 5개 체험실을 학부모와 함께 체험함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경상남도유아 체험교육원	760-7124

#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이란?

## 1. 수업에서 '철학적' 이란?

철학적 탐구 공동체 창시자인 매투윳맨은 철학이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철학적 주제들은 다름 아닌, '용기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가?', '탁월함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와 같이 당시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일상에서 던져졌던 질문이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윳맨은 일상적인 것들이 경이로움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철학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할 때 비로소 철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윳맨은 철학이 시작되기 위한 방아쇠로서의 질문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윳맨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철학이 이끄는 수업은 학생들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호기심은 재미를 먹고 산다. 재미와 흥미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업 중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인 재미, 배움의 재미로 나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친숙한 것(Familiar)을 제공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수업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교과 그리고 그 안의 단원이 얼마나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 2. 수업에서 '탐구' 란?

탐구는 고대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강조되어왔다. 숙고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 혹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적 태도를 지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은 곧 탐구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탐구의 개념은 퍼스에 의해서 현대적 의미로 재탄생하였다. 퍼스는 탐구를 '의심으로부터 생기는 곤혹감을

안정된 신념으로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행위'로 정의한다. 듀이는 퍼스의 탐구 개념을 발전시켜서 교육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다. 듀이에 따르면 탐구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불확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시작되며, 이 상황을 올바르게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중 학생들의 탐구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낱개의 지식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과 맥락은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스스로 부딪힐 때 고려되기 시작한다.

### 3. 수업에서 '공동체' 란?

수업에서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Unit화 된 수업과 Unity화 된 수업의 개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Unit(개인)화 된 수업은 일단, 교사와 학생들이 단절된 수업이다. 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상호작용이나 학습과 관련된 협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의 일방적 수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호기심은커녕 그 어떤 학습동기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업 중 Unity(연합)이 생기게 되면 전혀 양상이 달라진다. 수업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연합은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 다른 성별을 가진 학생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팀별로 묶게 되면 철저하게 Unit(개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다.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학생,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학생 등 팀별 활동의 부작용이 속출한다. 따라서 연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의 철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 4.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의 실제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의 프로세스만 간략히 소개한다.

- 1) 교재읽기 - 교과서나 학습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 형식의 글을 학생들과 함께 읽기
- 2) 질문만들기 - 학생들이 교재를 읽고 난후 느낀점이나 생기는 의문점을 질문으로 만들게 유도한다. 이 때 질문은 열린 질문의 형식을 띄도록 유도
- 3) 토의 - 철학적 탐구 공동체 수업에서 토의는 논쟁식이기 보다는 탐구식이라고 할 수 있다.
- 4) 토의 이후 활동 - 글쓰기 혹은 그리기 등 토의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iam-who-iam@hanmail.net]

# 알찬 연수·행복 교육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글 경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구자익

## 1. 전국 최우수 교육연수기관으로 선정

경상남도교육연수원(원장 양수만)은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전국 시·도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결과, 연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연수 성과 및 자체 역량 제고 영역 등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로써 경남교육연수원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전국 최고의 연수기관이라는 명성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 2. 경남교육연수원의 차별화된 연수과정

경남교육연수원은 맞춤형 연수로 현장에서 원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행복한 교실 연수, 개방형 맞춤 시스템, 현장체험 연수방법 개선 등 수요자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가. 수요자의 요구, 어떻게 수렴했을까?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교사,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연수과정 및

연수내용 전 영역에 걸쳐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경남교육연수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경남교육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 나. 의견 수렴 후 결과 처리는?

#### 1) 연수 운영의 중점 방향 수립

연수원에서 주관해야 할 연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과직무연수는 배움 중심 수업에 중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또한 행복학교, 진로교육 등 경상남도교육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연수를 확대하여 개설하였고 연수협력학교 및 연수도움학교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연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방공무원훈련법 개정에 따른 상시학습체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도 증설하였다.

#### 2) 연수 방법의 개선

기존의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액션러닝, 토의·토론 등 실습 및 참여 위주의 선진 연수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현장 체험 연수를 확대하였다.

### 3) 연수 안내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연수원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연수와 관련된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및 지역 단위 연수 시 강사나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연수와 관련된 컨설팅도 병행하였다.

## 다. 의견 수렴 결과의 반영은?

### 1) 연수과정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개설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9개 영역(자격, 법정, 시책, 교실 수업개선, 생활지도 및 상담, 진로진학, 리더십, 기획력 향상 및 행정지원능력, 교양) 108개 과정을 개설하여 6,453명의 연수생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 하였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개 영역(시책, 행정지원능력, 리더십, 기획력 향상, 교양) 62개 과정을 개설하여 5,655명의 연수생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 2)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자율연수 활성화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133개 확보하고 354개 과정을 운영하여 17,023명의 연수생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공모형 연수 운영 학교를 55개교에서 87개교로 확대하여 활성화하였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교육청 공모 현장 지원 연수를 18개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구회 공모 현장 지원 연수를 활성화하여 44개 연구회에서 연수를 개설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 3)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연수 확대 실시

초등에서는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생애주기별 연수를 확대하고 중등에서는 교과 직무연수의 비중을 확대하여 총 21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 연수과정에서 생활지도 및 상담직무 연수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 4) '찾아가는 연수' 활성화

서부경남지역의 연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부경남 지역에 연수협력학교 및 연수도움학교를 확보하여 초등

6개 과정, 중등 5개 과정에 걸쳐 총 440명의 연수생이 본 연수원 개설 연수에 참여하였다.

### 5) 상호작용이 활발한 참여형 연수 활성화

참여형 연수 활성화를 위해 액션러닝 강사요원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40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연수과목 수의 축소를 통해 참여형 연수 활동의 시수를 확보하였으며 액션러닝을 통한 분임토의,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한 참여형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 3. 특색사업, 재난·안전교육 실시

경남소방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리자(교감, 교장) 재난·안전교육 실시하여 360명의 연수생이 9기에 걸쳐 재난안전교육을 전원 이수하였다. 또한 교원 2,000명이 안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격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훈련과정 및 행정실장 역량강화, 시설 관리직 대상 교육훈련 과정에 440명의 연수생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본 연수원의 특색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배양시켜 학교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4. 도약·비상하는 경남교육연수원

경남교육연수원은 '알찬 연수·행복 교육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이라는 기관 운영 전략 아래, 연수생의 편의 도모와 연수 발전을 위해 연수원의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최상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교육연수원은 행복한 연수원, 사랑받는 연수원, 발전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 『초등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좋은 수업 연구』 경남초등수업연구회

글 창원 안청초등학교 교사 박영식

### 1. 동아리 활동의 핵심을 요약 서술

경남초등수업연구회는 2012년 교원 상호간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탄생하였다. 독서활동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업컨설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문헌 연구 및 나눔·배려·소통을 위한 협동적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소통과 융합, 집단 지성의 시대에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초등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좋은 수업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 특성화 분야와 차별화된 운영방안 소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물의 양적 확산 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개발된 수업모델의 현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반화를 도모하였다. 찾아가는 컨설팅, 열린 워크숍, 맞춤형 연수 및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연구회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힘썼다.

## 1) 특성화 분야

### ① 창의·인성을 끌어 올리는 프로젝트 수업 모델 개발

- 구글어스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주제를 선정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협동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키우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② 창의·인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역사 수업 모델 개발

- 역사적 주제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모둠을 만들어 갈등 상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 경험, 관점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하는 스마트기반 모델을 개발하였다.

### ③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창의·인성 사회 수업 모델 개발

- 학생들의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협동 학습의 다양한 구조를 적용하여 사회과 수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의·토론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사용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2) 활동의 실제

### ① 세부운영계획

- 정기모임은 월 2회(2, 4주 목요일) 갖고 있다. 연구회 16명의 회원들이 한 학기 동안 지정된 책을 읽고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협의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책을 소개하면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하기’, ‘배움의 공동체’, ‘교사의 도전’,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있다.

## 3.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2012년은 연구회의 태동기로 기초학력정착 연구단체로 시작하였다. 영어분과에 공모하여 영어단어를 쉽게 익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13년은 창의·인성 연구회로의 변화를 시도한 해로 토의·토론 기반 수업에서 역사, 사회 수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창의·인성 연구회로 정착되었다. 스마트학습 모델을 통해 스스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고 워크숍, 컨설팅, 연수를 통해 연구회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2013년~2014년에는 수업 연구 동아리에 공모하여 다양한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에 적용하여 발표하였다. 2015년 이후로는 창의·인성 연구회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비회원과의 교류를 확산하고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 그림을 그리는 수학 선생님

창원남산고등학교 **신숙자** 선생님을 만나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창원남산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술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는 작가 신숙자입니다. 교직은 햇수로 17년에 접어들고 미술을 시작한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Q. 선생님은 원래 미술 전공이 아닌데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미술보다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교육을 전공하였고, 석사학위를 받고도 수학공부를 더 해서 박사과정을 밟아볼까 고민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런데 수학공부를 계속하면서 자신에게서 사라져가는 무엇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요. 혼자서 무작정 테디베어, 퀼트, 사진, 수묵채색화, 종이 공예 등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어요. 우연히 유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아! 바로 이거구나’ 하며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Q. 그동안 작품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2014년 활동만 말씀드리자면, 6월 세계우표전시회 「우표, 예술을 품다」100인의 특별초대전에서 “편지스토리-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세요”라는 연작 4점이 커버스토리로 선정되

어 별도 특별관에서 단독 전시되는 메인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IFARM과 After-MOON의 협찬으로 K-artist space 디자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습니다. 8월에는 청담동 PEACH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에 힘입어 9월에는 대구에서 믹스갤러리 개관 전시에 초대받아 연달아 개인전을 했습니다. 11월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앙데팡당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가수 라일라(LYLA)의 앨범 자켓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제 그림이 들어간 아트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Q. 작품을 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나 전시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미술활동을 할 때 가장 힘들게 느낀 벽은 바로, ‘학력’이었습니다. 국내학위도 없고, 프랑스나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어서 미술대회 원서를 내거나 전시 프로필을 작성할 때마다 학력란을 비워두었습니다. 이런 저를 비꼬아 말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참 아팠고, 지금이라도 미술을 전공해야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멋진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 자주 붓질을 할 수 있는 근면함, 나태해질 때 자신을 추스르는 엄격함, 캔버스 앞에서 과감할 수 있는 씩씩함을 주었습니다.

**Q. 교직과 병행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는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해 나가고 계신가요?**

A. 비결은 의외로 많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스케줄 체크는 샤워하는 6분 동안, 스케치는 회의를 기다리는 2분 동안,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동은 식사 후에 커피 마시는 15분 동안, 운동은 양치질하는 3분 동안, 독서는 커피숍에서 상대방 기다리는 10분 동안, 이런 식입니다. 시계를 보고 ‘아직 3분이 남았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이것은 러시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류비세프가 쓰던 방법인데, 그는 하루 10시간을 자고도 한 해에 9천 쪽에 달하는 소설책을 읽고, 평생 70여 권의 저서와 12,500장에 달하는 연구 자료를 남기기도 했죠. 물론 저는 매달, 매년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통계를 내지는 못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제 평생의 소망은 최근에 그리고 있는 ‘행복한 낙타(HAPPY CAMEL)’ 처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맑고 고운 기운을 전해주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작품 전시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과 계속 접하면서 활동영역과 분야를 넓혀야겠지요. 순수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북아트에도 관심이 많아 책표지와 삽화를 그리고, 나무로 된 책상이나 의자에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 교사 전수정의 서재는 “힐링”이다.

삶이 눈부시게 빛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에 겨워 쓰러지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를 위로 해주는 공간이 도서관이고 서재입니다.  
 책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힘을 얻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하고, 책에 낙서하며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슬로리딩을 통한 독서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라서도  
 도서관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 1. 선생님의 어린 시절 및 독서와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입원을 자주 했습니다. 잦은 병원 생활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 보다는 책을 읽는 시간이 남들보다 많았습니다. 책 사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동화, 위인전,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한창 순정만화 열풍이 불어서 만화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야자시간에는 선생님 몰래 소설책을 보기도 하는 등 책과 보낸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방에 책 한 권은 넣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 2. 선생님의 서재를 소개해 주세요.

책이 어지러이 꽂혀 있는 서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습니다. 요리책과 육아 서적이 몇 칸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학관련, 독서 지도법 관련 책, 수필집, 대하소설집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독서 패턴은 한 분야의 책을 주로 읽는 편인데 요즘은 인문학 책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 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양서, 혹은 좋은 독서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정보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사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의미있기 위해서는 저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느낌이나 의문점 등을 적어 두는 편입니다. 다음에 책장을 넘기며 적어 둔 글을 보면 내용이 쉽게 다가옵니다.

#### 4. 학생들 혹은 동료 교사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책들 중 학생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어릴 때 좋아했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입니다. 동료 교사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책은 도끼다'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입니다.

#### 5. 선생님이 읽으신 책과 관련해서 혹시 교과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다독(多讀)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슬로리딩 독서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독(多讀)보다 정독(精讀)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여 국어시간에 독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교사의 서재

## BOOK in



###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지은이) / 박동원(옮긴이) / 동녘 / 2002.12.20.

다섯 살 꼬마 소년 제제가 바라 본 세상을 슬프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성장 소설입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 버린 제제, 가족에게 말썽꾸러기라고 항상 매를 맞는 제제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 뽀르뚜가와 라임오렌지나무인 밍기뉴가 들려주는 우정이야기에 빠져들어 제제를 꼭 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 책은 도끼다

박웅현(지은이) / 북하우스 / 2011.10.10.

책 제목처럼 제 머리를 강렬한 도끼로 찍어 파문(波文)을 일으킨 책입니다. 광고인인 작가가 다른 작가의 소설 구절과 시인의 글귀, 화가의 그림을 소개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강의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같은 세상에 있어도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지은이) / 한빛비즈 / 2014.12.24.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선뜻 설명하기 힘든 개념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사문학 누정길에서 길을 묻는다

글 김해 진영고등학교 교사 황정혜

문학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답사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은 섬진강 기행에서였다.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를 읽고 찾아간 그곳에서, 책에서 보지 못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삶을 날 것으로 들여다보는 맛을 알게 되었다. 그 기억을 간직한채 올해는 온 가족이 담양을 찾았다. 여러 번 다녀와서 안가도 된다는 만류에도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아프고, 곧 먼 길을 떠나야할 딸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모성이 동하기도 한 탓이다.

첫 도착지는 죽녹원이었다. 담양 관광 안내 여직원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있던 나는 담양의 멋을 담고 있는 듯한 분을 소개받았다. 안내소를 나와 대나무 울창한 숲길을 걸었다. 가족여행은 시시하다고 징징대는 막내를 달래서 숲길을 오르고 언덕길을 내려서 소개받은 정자를 찾았다.

“잠시 나갔소잉, 쪼까 있음 오시오잉 쪼까 기다리소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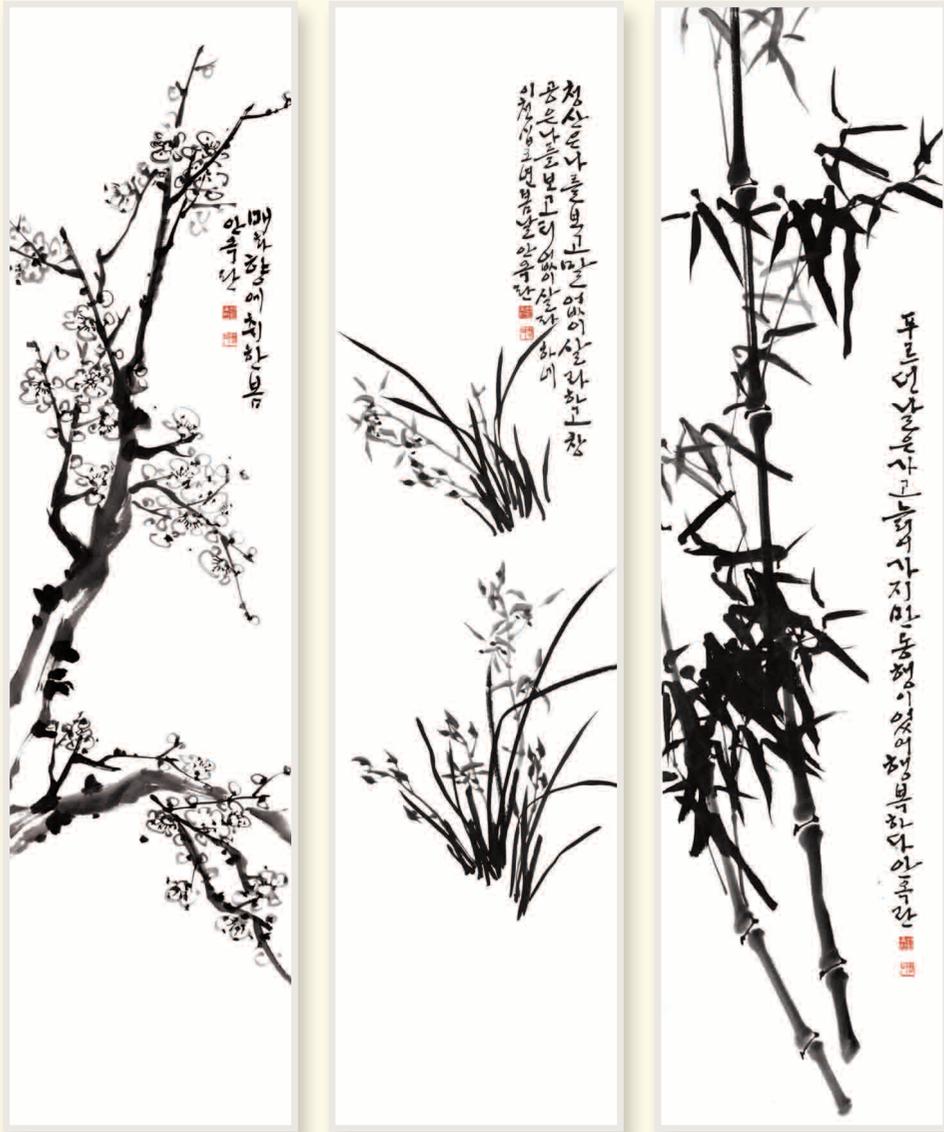
부채 만드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장인의 전라도 억양이 소리의 한가락 같았다. 장인이 만든 짚 부채를 하나 사서 들고 ‘송강정’으로 갔다. 처진 발 앞에 대나무 잎이 가느다랗게 뻗어 오른 것이 마치 난초 같은 정갈함을 주는 정자를 구경하고 있는데, 상투 머리에 하얀 베적삼을 입은 정자의 주인이 오신다. 임제가 황진이 무덤 앞에서 읊조린 시조와, 송순의 시조, 면앙정가 한 구절을 소리 가락 같은 맛깔스러운 억양으로 들려주신다. 참으로 신기하다. 종이 위에 활자로 보던 것을 육성으로 들으니 느낌이 다르다. 글이 소리가 되어 날아오른다. 하얀 짚부채 위에도 새 한 마리 앉은 매화나무와 김용택의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그려 주신다. 부채와 딸 헤림이가 한데 어울려 그림같이 되었다. 문학이 삶이고 삶이 문학이 되는 풍류가 이런 것인가 보다.

이번 기행에서 삶을 문학으로 담아내는 풍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낀 것은 비단 나뭇잎이 아니다. 까다롭고 예민한 딸아리와 징징거리던 셋째가 하얗게 핀 나리꽃 앞에서 웃는다. 무뎠고 정 없어 보이는 둘째도 목단 그려진 부채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엄마,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어!”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나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찾은 ‘담양 가사문학 누정길’이 사색하는 길이었으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이처럼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제목 >> 매, 난, 죽

매화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인내심을  
난초는 정갈하고 고귀한 품격과 은은함을  
대나무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절개를 상징한다고 한다.  
인내심, 고귀한 품격, 불굴의 정신을 닮고 싶은 마음에 붓과 먹으로 표현해 보았다.

안 옥 란 / 현) 창원 대야초등학교 수석교사

- 서예문화대전 작가 2009년 •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 작가 2010년 • 진해시민회초대회 작가 2010년
- 개천미술대상전 작가 2014년 • 개천예술제회초대회 작가 2014년
- 공무원 미술대전 2008.2011년 2회 입선 • 대한민국문화대전 2007년 이후 특선 1회 입선 8회 • 경상남도미술대전 2007년 이후 9회 입선
- 경남여성회초대회 2006년 이후 9회 입선 • '대한민국 문인화 협회 회원전' 참가(2015. 10.) 외 다수 전시회 참가

#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 교통신서 비준수 관행 개선
2. **선행교육 근절**
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4.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5.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점을 강화하고, 대학입학전형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합니다!

**어떻게?**

01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강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여부를 연 2회 점검합니다.

학교 수업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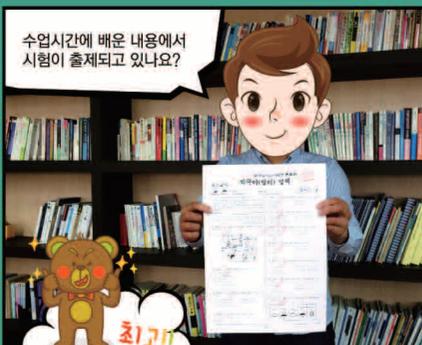
OK!!

**어떻게?**

01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강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여부를 연 2회 점검합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나요?



최고!!

**어떻게?**

02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논술시험 등 대학입학전형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안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먼저, 지난 4-7월에 논술, 구술, 적성고사 등 대학입학전형 시험을 치른 각 대학의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했어요.



분석을 토대로 법률을 위반한 대학이 있다면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답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행교육을 차단하고 근절하여,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지지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